

#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본소득

이건민 반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흥미로운 책이 나왔다. 2022년에 『그건 내 건데: 기본소득, 모두가 조건 없이 찾아야 할 권리』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서를 집필한 이선배 작가가 이번에는 어린이가 쉽고 재미있게 읽을만한 좋은 책인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을 우리 앞에 내놓았다.

이 책은 기후위기, 로봇과 AI로 인한 대량실업 공포,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성불평등이라는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걱정하고 이의 해결을 열망하는 다섯 아이가 가상 게임 공간에서 기본소득에 힘입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다. 강기후, 노본회퍼, 지소유, 극득남이라는 네 아이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또 다른 아이인 공유부, 그리고 토머스 페인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접하고 기본소득이 우리 시대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섯 아이는 기후재난, 일자리 재난, 극심한 소득불평등 및 성불평등과의 대결에서 기본소득을 게임 체인저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에 성공한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일의 결과나 흐름을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154면)을 뜻하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강노지극’(“힘찬 활에서 튕겨 나온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져 부드

러운 비단조차 뚫지 못한다.”라는 뜻, 153면)이라는 고사성어는 시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질서가 매우 공고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작가의 긍정과 믿음을 잘 보여주는 말로 생각된다. 둘째, 기본소득이 허무맹랑한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갖가지 난제들의 해결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기후재난, 일자리 재난, 극심한 소득불평등 및 성불평등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현재의 문제를 실용적이면서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유용한 해법으로 위치 짓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현재 상황을 하나의 극단으로, 실현 불가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해법을 또 다른 극단으로 놓고, 기본소득을 양극단에서 벗어난 실현 가능하고도 필수적인 정책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매우 영리하고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공유부가 “인간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땅, 하늘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공유부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자연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195면).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7장은 개발주의, 성장주의, 생산(력)주의, 소비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재의 생태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상 게임이라는 설정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맹하나 작가님의 그림은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으면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당성,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다섯 아이는 함께 깨닫고 직접 행동에 나서므로써 네 가지 대결에서 승리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큰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과반수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바로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지지 세력을 전반적으로 넓힘과 동시에 기본소득의 정책화를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론화와 숙의 토론이 그 출발점 중 하나라고 할 때, 그리고 저자가 독서교육의 전문가임을 고려해 볼 때, 추후 기본소득을 의제로 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공론화 과정이나 모의 토론을 담아내는 후속작이 발표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 1. 23차 대회의 주제와 특징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이하 BIEN)는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학자와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8월에는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렸고 올해 제23차 BIEN 대회는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2024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대회의 주제는 ‘급진적 뿌리 되찾기: 기본소득과 사회-생태적 전환’(Reclaiming Radical Roots: Basic Income and Socio-ecological Transformation)<sup>1)</sup>이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sup>1)</sup>

BIEN 2024는 경제적으로 정의롭고 정치적으로 포용적이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사회적 전환의 근본적인 도구로서 기본소득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우리는 기후 변화, 전세계적 불평등, 우익 포퓰리즘, 기술 혁신 등 서로 연관된 여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UBI의 사례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실현에는 여전히 주요한 장벽이 있다. 국가적 맥락에서 UBI의 시행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으며,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징벌적이고 보편

1) <https://www.bien2024.net/theme>

성이 떨어지며, 일부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현상 유지나 이익 추구에 의해 포획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 기본소득은 급진적 사회적 전환의 수단인가, 아니면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의를 개혁하고 회복하기 위한 도구인가?
- 기본소득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sup>Black Lives Matter</sup>, 배상<sup>reparation</sup>, 에코페미니즘, 포스트 성장 등 사회적 전환과 사회 정의를 위한 인접한 정치 운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보편주의 또는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 제안은 UBI로 가는 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급진적이거나 전환적 잠재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것인가?
- 사회적으로 전환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소득의 정책 설계, 옹호, 연구 또는 파일럿을 이끄는 원칙은 무엇일까?
-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이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파일럿이 설계되는 경우가 많지만, UBI에 대한 보다 급진적 비전을 가진 연구팀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른 (더 전환적인) 지표나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 어떻게 하면 파일럿 운영을 넘어 가시적인 변화와 더 넓은 정치적 동원과 정책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 아래, 기획 세션 및 여섯 가지의 세션이 동시에 개설되었다. 기본소득과 사회-생태적 전환이라는 급진적 주제를 탐구하는 것만큼 다양한 주제의 세션들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1) 기본소득 현실화하기, (2) 사회정책, (3) 사회-생태 정의1, (4) 사회-생태정의 2, (5) 실험들, (6) 포푸리<sup>Potpourri</sup>의 병행 세션이 진행되었다. 세션별 주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sup>

이번 대회와 특징적인 부분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본회의와 일부 세션이 생중계되었는데, 6개 패널 세션 중 2개 세션은 대면과 줌 회의를 결합하여 전 세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4개의 패널 세션은 대면으로만 진행되었다. 둘째, 해당 세션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열렸다. UBI 관련 영화 상영 세션뿐만 아니라 로비에서는 UBI 관련 게임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공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회 첫째 날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스카이라인 워크<sup>Skyline Walk</sup>, 둘째 날 저녁 시간에는 바스 시내 투어<sup>Bath Walking Tour</sup>가 진행되었다.

2) 각 세션별 발표자 및 토론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그램북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https://www.bien2024.net/congress-booklet>



이 교외 활동에 참여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했다. 또한 대회 시작 전날부터 대회가 진행되는 매일 저녁에는 침묵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셋째, 대회 3일 차에는 영국의 날UK Day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영국 시민사회와 BIEN 대회 참여자는 이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행사는 ‘함께 미래를 준비합시다: 21세기에 적합한 사회보장Let’s face the future together. Social security fit for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센트럴 배스 Central Bath의 유서 깊은 길드홀Guildhall에서 열렸다. 연사로는 전 웨일즈 제1부 장관 마크 드레이크포드Mark Drakeford, 전 녹색당 의원 캐롤라인 루카스Caroline Lucas, 저명한 토지 권리운동가 가이 슈룹솔Guy Shrubsole 등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참조할 수 있다.<sup>3)</sup>

넷째, 이번 대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반영한 ‘모두를 위한 공유의 원칙Shared Principles for All’을 세웠으며 이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BIEN 2024에서 함께 만드는 무조건성

기본소득의 가장 급진적인 측면은 아마도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무조건성일 것입니다. 무조건성은 우리의 경험이나 현재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과 너무도 이질적이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 무조건성의 정신을 우리 문화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대회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에 도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과 느낌이 될까요?

BIEN에 오시는 분들을 초대하여 직접 체험해보고 발견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모두를 위한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패널, 좌장, 청중 참가자, 방청객 등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재생산하는 권력과 조건의 일상적 관행과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자는 초대장입니다. 먼저 말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가장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공간을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종종 무언의) 조건에 의해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환영받을 것이며 이는 필요한 일입니다.

모두를 위한 공유의 원칙 Shared Principles for All

- 말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말이 정말 이 공간에 도움이 될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3) <https://actionnetwork.org/events/let-us-face-the-future-together-social-security-fit-for-the-21st-century?nowrapper=true&referrer=&source=>

- 말을 자주 하고 또 말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서세요.
- 다른 사람만큼 말을 자주 하지 않고 말하기가 불편한 사람이라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세요.
- 항상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들은 내용 중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공유하세요. 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발표자가 그 부분을 들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표자가 ‘예’라고 대답하면, 명확하게 공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전달하세요.
-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의 경험에서 왔고, 모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 살아있는 경험과 학문적 지식은 모두 소중합니다.
- 겸손한 자세로 자신이 모르거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 서로를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말하지 맙시다(열정은 좋지만!). 우리는 관계를 만들고 서로 의지하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서로를 친구이자 동료로 대합니다.
- 친절하게 대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세요. 배려하세요. 협동심을 발휘하세요.

개인적으로 영국 방문은 처음이었다. 대회 며칠 전에 런던에 도착하여 관광을 한 후 기차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이동하여 바스Bath 시내에 도착했다. 런던과 달리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에 들었다. 시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바스 스파Bath Spa 기차역에서 내린 곳이 시내의 중심이었고, 바스 대학은 산 위에 있어서 버스로 약 15분에서 20분 가량 더 들어가야 했다. 바스대학은 산 속에 있어서 더욱 운치 있었다. 방학인지 학생들은 많이 없었고 나는 3일 내내 대학의 1인 기숙사에 묵었다. 큰 창과 큰 나무가 반기는 정갈한 방이었는데 나는 꽤나 그 방이 마음에 들었다. 만일 큰 창이 없었다면 산 속에 사는 다양한 새들의 목소리로 아침잠을 쉽게 깰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공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 속에 산책하기 좋았던 공간이었다.

이에 반해 구내식당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없었다. 구내식당마저도 방학이라 일찍 문을 닫는 실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의 조식, 점심, 그리고 리셉션을 제외한 저녁식사의 경우에는 케이터링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대회 전날의 비공식 모임과 대회 첫날의 리셉션을 위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약 15분 가량 시내로 이동해야 했다. 시내에서 대학으로 오는 마지막 버스는 밤 11시 이전에 끊겼기 때문에 모두들 일찍 귀소해야 했다. 오히려 다음날 대회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 또한 좋았다.



바스대학교 산책길



바스대학교 기숙사

이번 대회가 바스대학에서 열린 이유를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바스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기본소득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UBI 파일럿 네트워크<sup>UBI Piloters Network</sup>, 정책연구소의 UBI 랩<sup>Institute for Policy Research's UBI Lab</sup>, WorkFREE 시범 프로젝트<sup>WorkFREE Pilot Project</sup>, 그리고 올해 대회의 공식주최자인 Bath UBI Beacon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Bath UBI Beacon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협업 가능한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대학의 연구커뮤니티가 주요 글로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UBI Bath 팀에는 다양한 연구 분야를 가진 다양한 출신 국가의 연구자들이 모여 일하고 있다. 특히 영국 최초의 기본소득 연구소를 바스대학에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BI 파일럿 운영, UBI와 공공보건, UBI와 기후변화, 기술변화와 일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UBI Bath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혹은 협력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들이 발표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 글은 BIEN 참가기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았다. 여섯 개의 세션이 동시에 열렸기 때문에 필자가 관심이 있는 세션 외에 물리적으로 대부분의 세션을 참가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한국 발표자의 경우 강남훈 선생님의 ‘공유 지대와 공유부 배당<sup>Commons Rent and Commons Dividend</sup>’, 유종성 선생님의 ‘자유, 평등, 지속가능한 효율성이라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sup>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nterms of Freedom, Equality, and Sustainable Efficiency</sup>’ 발표가 있었다.

### <2024 BIEN 대회 일정표>

일자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UBI를 현실화하기	사회정책	사회-생태 정의 1	사회-생태 정의 2	실험들	포푸리
8월 28일 (대회전날)	오전-오후	도착					
	저녁	비공식 모임					
8월 29일 (첫째 날)	08:00-10:00	등록					
	10:00-11:30	기획세션					
	11:30-13:00	세션 1					
		남아공의 기본소득 제안이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의 전환적 효과	배상(reparations) 및 소득보장: 형사 사법 시스템의 불공정성 시정	기후 정의, 글로벌 정의, UBI -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UBI의 전환적 가능성	웨일스 돌봄 휴직자 (Care Leavers)를 위한 기본소득 파일럿: 평가 개요	무조건적 자유에 대한 대화: 보편적 기본소득과 사회적 권리 / 데이비드 카사스
	13:00-14:30	점심식사 + Skyline Walk					
	14:30-16:00	세션 2					
		인도의 현금 기반 사회 정책	기본소득의 전환적 효과	노동 및 탈출(Exit)	Give Directly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BIEN: UBI 데이터	저자와 비평가의 만남(UBI: Essential Knowledge)
	16:00-16:30	휴식시간					
	16:30-18:00	세션 3					
		기본소득을 향한 지지체의 길: 마리카(Maricá) 모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과 노숙자	가족 구성	평화를 위한 기본소득	WorkFREE의 UBI+: 변화(Transition)를 넘어 전환(Transformation)으로?	영화 Outgrow the System
18:00-20:00	리셉션						
로비 설치	게임 옴포리엄(게임을 사용하여 UBI와 소통하고 실험하는 인터랙티브 게임과 디스플레이를 하루종일 이용)						
	InHerHands, UBI Monopoly 기본소득 정책 설계/시범 시행을 위한 간단한 지침 생성 (using LEGO® SERIOUS PLAY® methodology)						
8월 30일 (둘째 날)	08:00-09:30	명상, 산책					
	09:30-11:00	세션1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을 정치적 의제로 삼는 방법	기본소득과 예술	BIEN: 지역 허브/ 개발도상국에서 UBI가 실현 가능한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얻은 교훈	기본소득 실험의 윤리	마리카(Maricá)	UBI와 영화: 남아프리카공화국 영화 3편 (shining path 포함)
	11:00-11:30	휴식					
	11:30-13:00	세션2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을 정치적 의제로 삼는 방법	기본소득과 예술	현물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 서비스 캠페인, 기본소득 운동,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더 넓은 이해	UBI와 생태-사회 국가: 변화, 개혁, 아니면 모두?	글로벌 사우스의 원주민과 함께, 그리고 원주민을 위한 기본소득 시범 사업 탐색	영국의 보편적 기본소득과 지속가능한 식단 사이의 역동적 연관성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공동 제작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세션3					
		UBI와 노조 운동: 노조가 UBI를 현실화하고 급진적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안정의 씨앗을 뿌리다	BIEN 총회	세계적으로 사고하기	현금 '플러스' 무엇?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파일럿부터 정책 일관성까지?	기본소득과 사회적 조각 (Sculpture)
	15:30-16:00	휴식					
16:00-17:30	세션4						
	유니버설 크레딧에서 UBI로 변화	타협의 기술: 캐나다 맥락에서 전환적 사회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연구에서의 성별균형과 관점에 대한 탐구	영화 상영: Unconditional	현금 '플러스' 무엇?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파일럿부터 정책 일관성까지?	기본소득과 사회적 조각	
18:30-20:00	버스 시내 투어(Bath Walking Tour)						
20:00-23:00	대회 저녁식사						



8월 31일 (셋째 날)	08:00-09:30	명상, 산책					
		세션1					
	09:30-11:00	(파일럿을 통한) 정치적 지지 구축	프레이밍과 내러티브	UBI과 거버넌스	너무 단순한 것이 좋은가?	젠더 역량강화: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얻은 통찰	이론과 UBI
	11:00-11:30	휴식					
		세션2					
	11:30-13:00	(파일럿을 통한) 정치적 지지 구축	재원마련과 실현가능성	젠더와 교차성	부채 없는 돈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UBI의 역할	이론과 UBI
	13:00-14:00	점심식사					
		세션3					
	14:00-15:30	인도 UBI 실현 로드맵의 공동제작: 글로벌 적용을 위한 템플릿	재원마련과 실현가능성	BI 정의 - 몇 가지 미해결 문제 1	BIEN: BIEN의 미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UBI의 역할	인접 제도
	15:30-16:00	휴식					
	세션4						
16:00-17:30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UBI: 정책, 정치 및 사회적 수용성 탐색하기	재원마련과 실현가능성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식량 안보	-	-	-	
17:30	대회 종료						

이번 해외 동향에서는 필자가 참여한 세션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이번 BIEN 대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논의되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1) UBI Bath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2) UBI Data, (3) 브라질 마리카Maricá의 사례다. 관련 추가 정보는 각주에 달아두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제 2024년 BIEN 대회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를 하나씩 살펴보자.

## 2. UBI Bath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 1) WorkFREE 프로젝트

인도와 영국의 학자, 활동가, 시민사회기관이 모여 인도 하이데라바드 도심의 비공식 정착촌(또는 바스티라고 부르는) 네 곳에서 ‘UBI+’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바스티의 모든 주민들(약 1,250명/350 가구)은 2022년부터 18개월 동안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24개월 동안 지역사회 조직가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 이 시범사업을 WorkFREE라고 부른다. 바스티의 주민들은 주로 이 지역으로 이주한 1세대 또는 2세대로 대다수의 인구는 불가촉 천민 카스트 출신이며 빈곤한 상태에 처해있다. 이들은 쓰레기 줍기나 가사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이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인도의 150만에서 400만 명에 달하는 쓰레기 수거노동자들은 극심한 빈곤, 모멸감, 보이지 않는 소외 속에 살아가고 있다. 카스트 제도, 물질적 박탈, 부적절한 위생으로 인



첫째날 기초 강연에서 UBI Bath 소개

해 여러 겹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아가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착취적이고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 없이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 산업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필수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들이 없다면 인도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잘 분류되어 재활용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수거노동자 중 일부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거나 주정부로부터 소정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가정방문 수거의 경우 각 가정으로부터 매우 적은 금액을 받곤 한다. 이후 재활용 회사에 쓰레기를 판매하여 돈을 벌고 있다. WorkFREE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지역사회의 4인 가족 평균 가구소득은 약 INR 10,000(약 \$135) 수준이다. 이러한 쓰레기 수거 활동은 정규 교육이나 숙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참여하며, 하이데라바드에서 이 일을 하는 대부분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 이 일을 선택하고 있다.

UBI+ 실험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한' 기존 주류의 노력이 실패했다는 좌절감에서 출발했다. 이에 WorkFREE 시범사업은 보편적 기본소득UBI과 필요/욕구needs에 초점을 맞춘 참여형 지역사회조직을 결합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실험은 기존의 UBI 실험과 달리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탐구하고자 한다. (i) UBI가 정말 노동시장의 자유를 촉진하는가, (ii) 착취를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종식시킬 수 있는가, (iii) UBI가 시민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iv) 녹색 전환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또한 기존 실험에서 주로 초점을 맞췄던 개인 수준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변화 및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모델링하였다. 현금 전달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 중심의 관계적 '플러스' 요소를 연결한다. 다시 말해 이번 실험에서는 수혜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해, 수혜자와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가를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관계적 '플러스'가 일상적으로 현금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 변화를 마련한

다는 새로운 관점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현금은 ‘시간을 만드는 것’, 즉 수혜자에게 끊임없는 업무 이외의 활동을 위한 삶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지역사회 활동의 ‘플러스’를 ‘공간 만들기’, 즉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그들의 삶을 집단적으로 이해하고 재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UBI+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실험은 무작위 대조 시험보다 혼합 방법 설계를 사용한다. 설문조사, 질적연구,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를 활용하여 누구에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문서화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문조사는 기초선, 중간, 종료, 실험종료 후 등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소비 모듈과 같은 전통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유의 사다리’와 같은 보다 혁신적 요소가 포함된다. 후자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주체성 등에 대한 실증자료가 될 수 있다. 질적 연구에는 인터뷰, FGI, 포토보이스, 역할극과 같은 참여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의도적으로 선정된 그룹에 대해 여러 시점에서 진행되며 주제분석 및 심층분석이 병행된다. 마지막으로 수개월에 걸쳐 참가자 커뮤니티에 대한 수개월 간의 현장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WorkFREE 연구 프로젝트의 의미는 UBI+가 빈곤완화를 위한 사회보장개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특히 노동과 자유, 존엄과 일, 필요의 개념, 관계성,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젠더 효과를 주요 연구 주제로 하여 분석한다. UBI의 지급이 노동으로부터의 탈출과 착취로부터의 협상력의 증진을 높일 수 있는지, 인도에서 쓰레기 수거노동자의 삶은 ‘불결하다’라는 낙인이 부여되는데 기본소득이 자기 존중과 존엄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필요’와 ‘관계성’인데, UBI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기본소득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조직이 어떠한 관계적 ‘플러스’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탐구이다. 이러한 관심은 기본소득이 비물질적 방식의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의 관심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구조화된 젠더 불평등과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게 다루는 또 다른 연구 주제이다. 이렇게 WorkFREE 프로젝트는 다양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실험의 결과가 기대된다. 결과는 2024년과 2025년에 보고될 예정이다.<sup>4)</sup>

## 2) 클라리사 사회적 보호CLARISSA Social Protection

클라리사 사회적 보호 파일럿은 WorkFREE와 마찬가지로 네팔과 방글라데시 다카의 슬럼 지역에 제공되는 ‘현금 플러스’ 사회실험이다. 해당 지역의 아동들이 위험한 조건 속에서 착취적 노동을 피할 수 있도록 증거 기반의 혁신적 해결책을 개발하는 5년 간의 행동연구 컨소시엄이다. 구체적으로 무조건적

4) <https://www.work-free.net/>

인 현금과 필요에 초점을 맞춘 참여형 지역사회 조직을 결합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실험은 개발연구소이자 파트너인 Bath, 국제 NGO인 Terre des Hommes, 거버넌스 및 개발연구소인 Brac가 주도하여 진행하며, 2024년과 2025년에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5)</sup>

### 3) 영화제작에 참여

UBI Bath 팀은 여러 편의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대회 첫째 날에 상영한 ‘Unconditional’은 무조건적 현금과 지역사회 조직화를 결합한 남아시아의 정책 실험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 미디어 플랫폼인 오픈 데모크라시<sup>Open Democracy</sup>와 파트너십을 통해 기본소득의 조직화, 정책 운동, 정치적 잠재력에 대한 글, 동영상, 논평 등의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여기에 게시된 글과 영상들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매우 다채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어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기를 권한다.<sup>6)</sup>

대회에서 상영한 세 편의 영화를 조금 더 살펴보자. 먼저 <Unconditional>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전통적인 사회정책을 뒤집은 두 가지 고무적인 정책 실험에 대한 이야기다. 예고편은 다음에서 참고할 수 있다.<sup>7)</sup>

30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파일럿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지역사회 조직자들의 기여를 통해 'UBI+'의 힘을 조명하고, 무조건성이 사회정책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명한다. 토론자로는 켄 로치 감독이 초청되었다.

둘째 날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단편 영화 세 편<sup>3 Short Films From South Africa inc. A Decent Path</sup>이 상영되었다. <괜찮은 길<sup>Decent Path</sup>>은 R350 보조금이 주요 수혜자 4명의 삶에 미친 영향을 조명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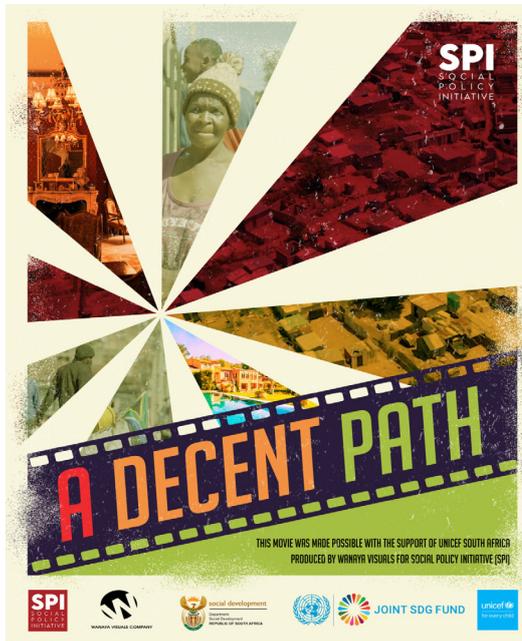


Uncondi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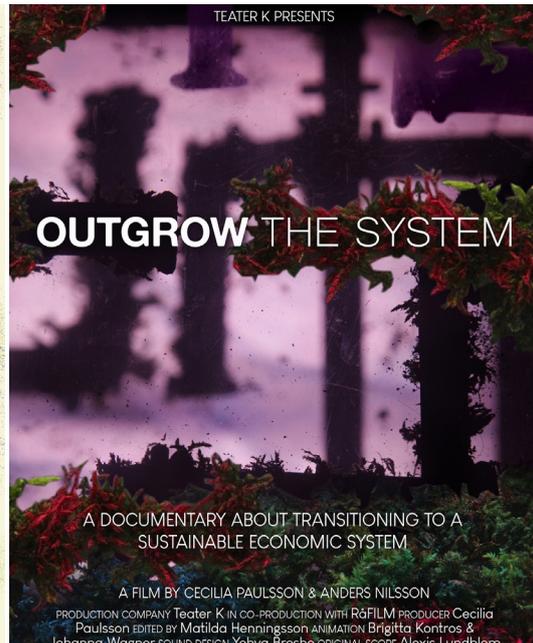
5) <https://clarissa.global/>

6) <https://www.opendemocracy.net/en/beyond-trafficking-and-slavery/universal-basic-income/>

7) <https://vimeo.com/988081115/d077561e6c>



3 Short Films From South Africa



Outgrow the System

력적인 다큐멘터리이다. 예고편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8)</sup>

셋째 날에는 <Outgrow the System>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풍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충돌하고 융합하도록 촉구하며, 전 세계 사회운동이 단순히 디스토피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비전으로 결집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6대륙 23개국 47개 도시에서 상영되었으며, 올해 6월 27일 인천 녹색기후기금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었다. 예고편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9)</sup>

### 3. UBI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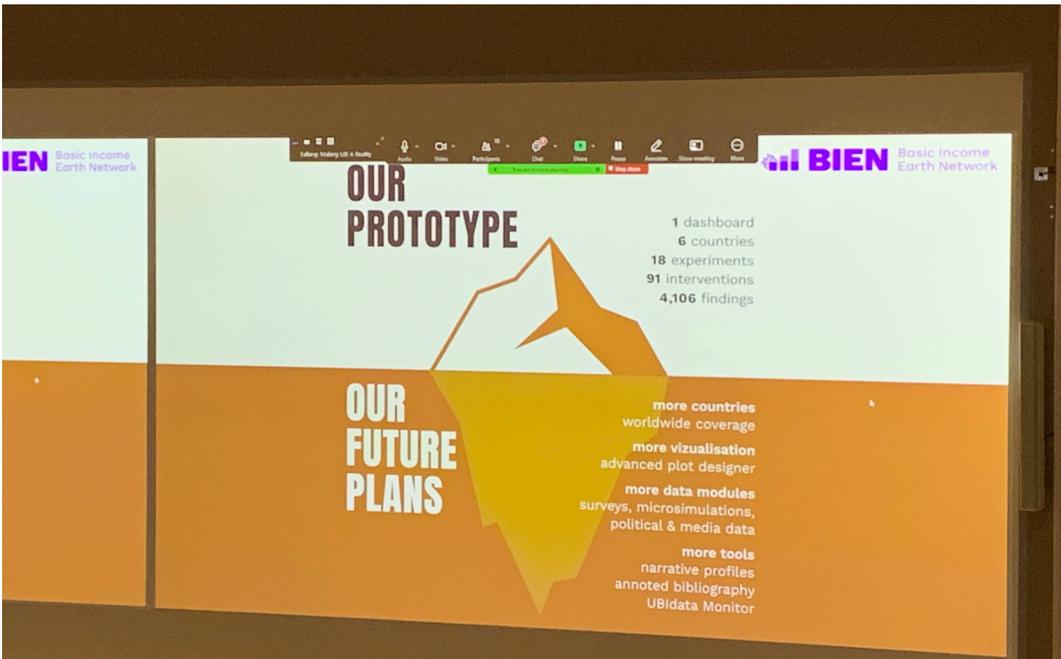
UBI Data 프로젝트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UBI Bath, 자율성 연구소Autonomy Institute, 공유지식Common Knowledge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이번 대회에서 처음 출시하였다. UBI Data의 목적은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토론을 이끌어내며, 기본소득 도입에 관심이 있는 정책가, 연구자,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을 위한 핵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실험, 설문조사 및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정치 및 미디어 토론, 풀뿌리 조직과 네트워크의 발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프로토타입의 시작 단계에 있다.

8) <https://www.spi.net.za/a-decent-path-movie/>

9) <https://rafilm.se/outgrow-the-system>



UBI Data 발표 세션



현재 베타버전과 미래 계획

현재 공개된 베타 버전은 6개국에서 실시한 소수의 파일럿의 주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유용성과 사용자 경험을 소규모로 시연하여 테스트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이는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현 시범단계를 거쳐 전 세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 제안 등에서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처리,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둔 온라인 지식저장소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https://ubidata.io>)에서 게시된 자료를 검토해보고 [contact@ubidata.io](mailto:contact@ubidata.io)으로 피드백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발표한 위르겐 Jurgен De Wispelaere 교수는

---

향후 전 세계의 자료를 수집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참여와 자금 지원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UBI Data에 한국의 여러 정책 및 실험자료를 추가하는 방안도 한국네트워크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 4. 브라질 마리카의 사례

브라질 마리카는 현재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3년에 처음 만들어져 여러 가지 설계과정을 거쳐 2019년 12월에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마리카 기본소득은 브라질 마리카 시(Brazilian city of Maricá)의 시민 93,000명에게 매월 무조건적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시민기본소득(Renda Basica de Cidadania: RBC)으로 알려진 이 정책은 석유 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마리카에 거주하고 연방정부의 사회 프로그램 등록부(Cadastro Único)에 등록된 사람들은 마리카의 지역 디지털 화폐인 뭌부카(mumbucas)로 1인당 월 130레알(57미국 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았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지급액의 약 두 배 이상 상승한 300 뭌부카(127미국 달러)를 지원받았다. 2022년 5월에는 지급액이 200 뭌부카(US\$ 79)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2023년 마지막 3분기에는 개인 빈곤선의 105% 이상인 230 뭌부카(US\$ 84)로 인상되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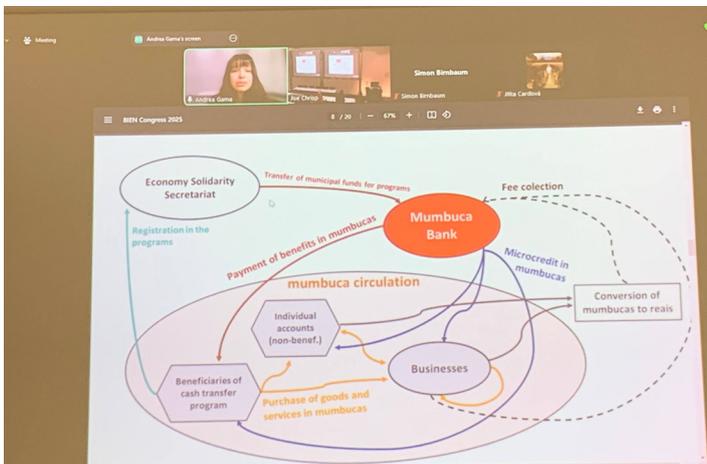
이에 더하여 도시에 ‘연대 경제(solidarity economy)’를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렌다 바시카 데 시다니아 프로그램(Renda Básica de Cidadania)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지역 화폐를 관리하고 도시 주민과 중소기업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은행인 뭌부카(Banco Mumbuca)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저축 계좌, 사립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학비 지원, 도시 내 무료 대중교통 시스템, 원주민을 위한 추가 혜택, 비공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이체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영구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2017년 12월에 석유 로열티로 조성된 국부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1인당 빈곤선이 월 218레알(84미국 달러)인 브라질에서 마리카의 기본소득과 광범위한 연대경제 정책은 수만 명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된다.

뉴욕에 위치한 자인가족연구소(Jain Family Institute)와 브라질 연방 플루미넨세대학(Universidade Federal Fluminense)은 이번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마리카 시, 브라질 기본소득네트워크 및 전 세계 동료 학자들의 지원을 받아 형성된 국제 연구팀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결합한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는 수혜자, 비수혜자, 커뮤니티 리더를 결합한 삼각측량 혼합방법 설계(triangulation mixed-methods design)를 통해 수행된다.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천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

10) <https://www.maricabasicincome.com/>



둘째 날, 마리카 세션

로 대면 정량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소비, 신  
용접근성, 일자리, 소득, 신체적·심리적 웰빙,  
자녀의 웰빙, 관계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다. 이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 기  
간에 실시되었다. 둘째, 2020년 12월부터 화  
상 회의를 통해 지역 사업자, 정책입안자, 정  
치인 및 기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반구조  
화된 질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셋째, 설문  
조사 응답자 중 48명의 수혜자와 24명의 비  
수혜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적인터뷰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량조사에서 제기된 질  
문에서 도출된 추가 조사와 함께 사회과학 전  
반의 추가 질문을 탐구한다. 여기에는 (i) 후  
견주의 clientelism, 부패, 권리, (ii) 금융적 포  
섭과 공식 은행권 참여, (iii) 경제적 연대와  
사회적 통화, (iv) 낙인, 존엄성, 정치적 주체  
성, (v) 가족 및 성별 역학관계 등이 포함된  
다. 또한 몼부카 화폐의 유통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마리카 기본소득 실현의 이면에는 보우  
사 파밀리아 조건부 현금이전 프로그램 Bolsa Família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의 성공이 자리하고  
있다.<sup>11)</sup> 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이 비록 가구 단위였고 조건부 현금 이전 정책이었지만 2004년 브라  
질은 모든 국민(브라질에 5년 이상 거주한 모든 브라질 국민과 외국인)을 위한 권리로 ‘시민기본소득’을  
법으로 명문화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물론 이때의 시민기본소득은 보편성이 충족된 개념은 아니며  
예산 책정을 행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현도 계속해서 지연되었지만, 기본소득을 받을 법적  
권리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질 마리카의 정책은 이러한 법적 근거 속에  
서 실현된 것이며 이후 마리카의 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리카의 시민기본소득은 몼부카라는 지역화폐(현금)로 지급되며, 개별 단위의 무조건적이고 정기  
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지급 수준도 빈곤선과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몼부카는 지

11) 보우사 파밀리아는 2004년에 형성되어 이후 몇 년간 크게 확대되었다. 수혜자 가구 수는 2004년 600만 가구에서 2024년 2천만 가  
구 이상으로 증가했다(Secretaria de Comunicação Social, 2024). 이 프로그램의 결과, 노동 공급의 감소 없이 빈곤과 불평등 감소,  
영양 및 건강 개선, 학교 출석률 증가 및 학업 실패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증거들이 존재한다(Campello e Neri, 2013; Silva, 2019;  
Souza et al. 2019). 수혜자는 일련의 교육 및 건강 조건이 적용되었지만, 최근의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수급 조건의 엄격성이 완  
화되었다. 2024년 이 프로그램은 소득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1인당 소득이 최대 218레알인 가구로 설정하였다. 수급액도 증가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가구당 190레알 수준이었지만, 개정된 프로그램에서는 각 가구가 최소 R\$ 600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있다(출처: <https://www.maricabasicincome.com/en/about-the-study>).



지역화폐 Moeda Social Arariboia

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개인, 수혜자, 기업들은 뭉부카 은행에 등록하고 디지털 계좌를 개설한다. 기업은 뭉부카를 브라질 통용화폐(레알)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지만 수혜자는 이러한 권한이 제한된다. 뭉부카는 비아스 직불카드 또는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뭉부카를 통해 판매되는 것에 대해 2%의 판매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는 뭉부카 기금으로 적립된다. 뭉부카의 목적은 마리카의 자금 순환을 유지하고 보유량의 1.8배에 해당하는 거래량을 확보하여 승수 효과를 꾀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대 경제가 중심이 되는 뭉부카 지역화폐는 지역개발이 우선순위로 강조된다. 향후 정책의 효과 및 영향, 보편적 시민소득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8월, 제24차 BIEN 대회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 23차 BIEN 대회는 ‘기본소득과 사회-생태적 전환’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이 주제는 현재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 공동의 거주자로서 그리고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반드시 심도있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의제가 되었다. 이번 대회는 60여개 이상의 세션이 열린 만큼 중심 주제를 놓고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자 만남의 장을 열어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은 BIEN이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 정의의 핵심 요소로서의 기본소득” 선언에 공식적으로 지지서명을 했다는 점이다. 전 세계 39개 단체 및 이니셔티브, 47명의 학자와 활동가가 서명한 이 선언문은 로마 클럽에 전달되었으며, 향후 유엔 기구 및 대표들에게도 발송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네트워크를 포함한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는 생태-사회적 전환으로서 기본소득에 방점을 두고 여러 활동과 연구들을 진척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생태-사회적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더욱 심도 있는 논의들이 내년 대회에서 이뤄지기를 바라며, 내년 대회에서는 한국의 여러 사례들에 대한 양질의 발표가 진행되기를 희망해본다.

대회장 이모저모(오른쪽부터 시계방향)

첫째 날, 로비에서의 장면

첫째 날, UBI Bath의 리더 Neil 박사

둘째 날, 버스워킹투어(제인오스틴 센터 앞)

둘째 날, 리셉션 저녁식사 모임

둘째 날, 버스 워킹 투어

셋째 날, 강남훈 명예이사장님 발표

추신 대부분의 사진은 필자가 촬영한 것이며 대회의 공식사진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basincome.org/news/2024/09/photos-from-all-three-days-of-the-2024-bien-congress/> 아쉽게도 현재 사점에서 대회의 영상 및 발표문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